

북한 『로동신문』 사설 분석

2022-3 (3분기)

이기동 (한반도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목 차

1. 사설 목록	1
2. 주요 특징	2
3. 개별 사설 분석	7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설 목록

순서	일자	제목
1	7. 2	도전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천백배로 강해지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힘있게 과시하자
2	7. 5	우리 당의 도덕중시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가자
3	7.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4	7.17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
5	7.20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6	7.22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인 지향으로 되게 하자
7	7.27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8	7.30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9	8. 1	오늘의 전인민적인 진군길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자
10	8. 2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높은 창조적능력과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
11	8. 4	김화군을 본보기로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자
12	8. 6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
13	8.13	사상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정신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가속화해나가자
14	8.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으로 빛내어나가자
15	8.17	비상한 각오 안고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16	8.28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자
17	9. 1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자
18	9. 7	일군들은 당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자기 지역과 부문,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
19	9.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20	9.19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
21	9.28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위하여 총동원 앞으로!
22	9.29	농촌진흥의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안아오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자

2

주요 특징

- ◆ 3분기 사설들은 방역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2분기 사설들과 달리 5개년계획 수행을 독려하는데 중점
 - 8월 들어 ‘방역대전에서의 승리’ 선언 이후 추수기인 9월의 사설들은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건설을 주로 강조
- ◆ 하반기 첫 사설을 통해 현 상황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면서 당면한 엄혹한 시련을 주체의 힘과 내적동력 강화의 계기로 반전시킬 것을 독려(7.2)
 - 경제건설과 비상방역,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 과업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주문
 - 일심단결과 자립·자력의 토대 위에서 주체적 힘을 다짐으로써 올해의 전투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
 - 시련을 도약으로 반전시켰던 역사적 경험들을 소개
 - * △전후복구기를 통한 천리마시대 전개 △70-80년대 속도전을 통한 노동당의 전성시대 개막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 및 강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현재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 탄생
- ◆ 윤리도덕에 관한 문제를 혁명의 운명 및 전도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당의 도덕중시론을 선전(7.5)
 - 금년 하반기 들어 방역위기와 이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자 현철해 인민군 원수 사망을 계기로 그를 도덕의리의 화신으로 상징조작하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고 당중앙에 대한 충성을 도모하려는 목적
 - *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란 다름아닌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의 강자라는 것, 도덕이 지배하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며 열과 정,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혁명은 백전백승한다는 것,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도덕중시론”

- ◆ **방역위기 상황에서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을 우려(7.17)**
 - 특히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면서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혁명적 체계와 질서 수립을 촉구
- ◆ **‘전승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울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함으로써 현재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시사(7.20)**
 - 당면한 시련과 난관 및 방대한 과제들을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주문
 - 전승세대를 본받아 방역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5개년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을 요구
- ◆ **당면한 난국을 주체적 힘을 강화하는 기회로 반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구태의연한 사업태도를 일소해야 가능하다고 주장(7.22)**
 - 특히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요소들을 일소하고 새 것을 창조하고 혁신과 전진해야 시련기를 도약기로 반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
- ◆ **인민경제 전반에서 “진보와 낙후가 병존하는 비전형적인 상태”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모든 부문, 단위, 분야에서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의 필요성 선전(7.22)**
 - 구태와 모방을 배격하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 지향으로 되어야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
- ◆ **전승세대가 물려준 ‘승리전통’을 계승하여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청년들의 반제 의식 및 조국보위 의식 함양을 특별히 주문(7.27)**
 - 김정은의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의 연장선에서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철저히 대처할 것을 요구
 - 청년세대들의 이완된 반제의식을 우려, 전승세대들의 조국보위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
- ◆ **가사보다 국사를, 개인의 향락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애국심이 우리나라제일주의시대를 열게 된 원동력이라고 선전(8.1)**

- * “사람들이 국가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리속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헌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향유의 권리만 추구한다면 그러한 나라는 전도가 없다”

◆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보위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현재의 난관을 내적동력 강화의 기회로 반전시킬 것을 촉구(8.2)

- 하반기를 포함한 올해의 성과는 5개년계획 수행의 관건이므로 5개년계획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주문

◆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8.2)

- * “단위사업이 어떻게 되든 일을 되는대로 하는 그릇된 태도, 앉아서 조건타발이나 우는 소리를 하고 눈가림식으로 일하는 패배주의와 형식주의, 말이나 듣지 않을 정도로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보신주의”

◆ 모든 시, 군들이 김화군처럼 자기 지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신속히 현대화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독려(8.4)

- 김화군의 모범사례를 “지방공업혁명의 의의깊은 출발점이자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전진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라고 선전

◆ “전염병 발생 900여 일이 지난 현재”에도 서구 선진국들이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의 애민 업적을 부각(8.13)

- 북한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이고 빠른 확산 추세를 단기적이고 적시에 방역 안정을 회복하였다고 주장
- 김정은이 지난 5월 개최한 8기 8차 정치국회의에서 방역위기 대처원칙과 방안 제시,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전략예비의약품 긴급 해제 등을 지시한 결과로 선전
- * “방역전쟁에서의 승리야말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희생적인 헌신이 떠올린 인민사랑의 결정체”
- 동시에 방역대전을 거치면서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더욱 높아졌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강조
- * “온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과 위력이 있으며, 이것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올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힘이였다”

◆ 올해 농업생산 성과에 대한 절박성을 피력(8.17)

- △농업생산 발전을 국가의 존망과 혁명의 전진을 좌우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관건 △5개년계획 수행의 사활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선이 성과를 거두어야 다른 전선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 “우리 국가”를 강대국이자 필승불패국으로 정의하고 강대국의 공민다운 자세로 투쟁하여 5개년계획의 목표를 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 것을 독려(9.1)

-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을 높이 발양”, “강대국의 공민다운 자각을 안고 당당하게 처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자긍심을 간직”,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다운 이상과 포부를 확고히 견지”등과 같이 강대국 공민으로서의 자세를 요구
- 특히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등치시켜 김정은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주문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실현을 위한 세가지 투쟁목표와 네가지 투쟁과업을 제시(9.11)

- (투쟁목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담보 마련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없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 구축 △사회주의문화건설 추동
- (투쟁과업) △국가방위력건설을 제1혁명과업으로 추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 및 그 성과를 다음단계로 확대 △사상, 교육, 과학기술, 보건사업 중시 및 그 발전에 주력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

◆ 가을걷이(추수)와 낱알털기(탈곡)를 적기에 신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9.19)

- 태풍과 폭우 등 긴박한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수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히 마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낱알의 손실을 줄일 것을 요구

◆ 식량문제 해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당의 농촌지원 성과를 제시(9.28)

-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과제 △자존을 지킬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배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국가의 존망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
- △농장들의 부채면제 특별조치 단행 △비료와 농약 등 영농물자 적시 보장 대책 수립 △황해남도에서 새로 만든 수천대의 농기계 보급과 같은 농촌 지원 성과를 선전

◆ 농업에서의 기계화 비중 증대를 사회주의농촌진흥사업의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면서 군수공업부문을 활용한 김정은의 관련 업적을 적극 선전(9.29)

-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정은이 군수공업부문에서 만든 5,500대의 새 농기계들을 황해남도에 공급한 것을 “황남의 대경사”, “9월의 대경사”로 표현
 -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총궐기하여 현시기 농산작업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기계들을 최단기간내에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한 해 농사를 결속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나라의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새 농기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 군수공업부문에서 5,500대의 농기계를 생산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필요에 따라 군수공업의 성과를 민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활용하려는 의도
- 이 밖에 황해남도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배려사례로 많은 제대군인 파견, 영농물자와 자재 우선 보장, 비상방역대전 당시 2차례에 걸친 의약품 제공 등을 제시

3

개별 사설 분석

7월

① 도전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천백배로 강해지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을 힘있게 과시하자(7.2)

- 금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남은 기간 “곤난극복정신과 창조적 힘을 총발동”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하반기 첫 사설을 통해 현 상황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묘사하면서 당면한 엄혹한 시련을 주체의 힘과 내적동력 강화의 계기로 반전시킬 것을 독려
 - 경제건설과 비상방역, 그리고 자연과의 투쟁 과업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주문
 - 일심단결과 자립·자력의 토대 위에서 주체적 힘을 다짐으로써 올해의 전투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
- 시련을 도약으로 반전시켰던 역사적 경험들을 소개
 - △전후복구기를 통한 천리마시대 전개 △70-80년대 속도전을 통한 노동당의 전성시대 개막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 및 강국건설의 도약대 마련 △현재의 우리나라제일주의 시대 탄생
- 당중앙의 두리에 뭉쳐 국가발전의 새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을 따라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신념 간직) △김정은의 위대성교양 강화를 통한 더 강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신념 각인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교양 방법들을 탐구적용하여 김정은의 사상과 뜻, 발걸음 함께하기 △일편단심 수령만을 충직히 받든 충신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 실속있게 진행
 -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 철저히 관철) △상반기 성과는 계속 확대하고 결점들을 제거하면서 뚜렷한 개변 이룩하기 △기간공업부문 일군들은 정해진 과업들을 제때에 완벽히 수행 △농업과 경공업부문은 생산투쟁과 증산투쟁 과감히 전개 △건설부문 일군들은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연포온실농장건설 등 중요대상건설과제 무조건 완수

- (서로 돕고 이끄는 덕과 정으로 난국 타개) △집단주의, 공산주의 구호 하에 어렵고 힘든 부문을 적극 도와주고 앞선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을 이끌어주어 집단적, 연대적 혁신 양양 △아픈 사람을 위해주고 불편한 사람을 부축해주며 힘든 사람에게 진정을 기울이는 풍조 확립 △가정보다 조국을 우선시하고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며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미덕과 미풍 발휘

② 우리 당의 도덕중시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가자(7.5)

○ 5월 19일 사망한 현철해 인민군 원수에 대한 김정은의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김정은은 현철해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조문 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시
- 현철해의 삶을 <빛나는 삶의 품> 32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라는 영화로 제작·방영하여 현철해의 “충실성과 혁명적 신념을 따라배울 것”을 주문

○ 윤리도덕에 관한 문제를 혁명의 운명 및 전도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당의 도덕중시론을 선전

- 금년 하반기 들어 방역위기와 이에 따라 경제건설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자 현철해 인민군 원수 사망을 계기로 그를 도덕의리의 화신으로 상징조작하여 인민들의 정신도덕적 타락을 방지하고 당중앙에 대한 충성을 도모하려는 목적
- * “참된 혁명가, 공산주의자란 다름아닌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의 강자라는 것, 도덕이 지배하는 나라가 진정한 강국이며 열과 정,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혁명은 백전백승한다는 것, 이것이 조선로동당의 도덕중시론”

○ 김정은의 도덕중시 업적을 소개

- △김일성과 김정일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옹립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사업을 양심과 의리, 도덕에 관한 문제로 내세우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세련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을 혁명의 목표로 제시 △도덕 교양을 필수 5대 교양사업의 하나로 제시 △전당과 온 사회에 도덕기강 확립 및 인민군대의 도덕강군화 실현 투쟁 전개

○ 도덕중시론의 의미를 설명

- (전체 인민을 견실한 혁명가, 고상한 인격의 체현자들로 키우는 정신적 자양분) △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서 도덕의 역할이 매우 중요 △도덕교양을 소홀히 하면 수령의 은덕도 모르고 혁명선배도 몰라보는 도덕적 패륜아, 정신적 불구자로 전락 △적대 세력들은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국가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 우선시하는 입장 견지
- (단결력으로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앞당기는 확고한 의지 내포) △도덕중시는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사람들의 협력과 협조관계를 승화시켜 사회발전과 국가부흥을 가속화하는 것이 근본목적 △집단주의와 공산주의 미덕과 미풍이 발휘되고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를 건설하며 법이 아니라 도덕이 지켜주고 도덕으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당의 구상이고 결심

○ 사회주의 도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은 혁명적 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임을 명심) △김정은의 도덕 의리 세계 따라배우기 △김정은의 숭고한 도덕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한 헌신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간직 △김정은의 혁명적 동지애를 귀감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을 되새기며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
- (온 사회에 도덕기강 확립의 된바람 일으키기) △김정은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실성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일편단심 수령만을 받든다는 철리를 명심하고 김정은의 두리에 일심단결 △김정은의 위인상과 은덕을 명심하고 충성과 의리를 변함없이 간직
- (혁명선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그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 곳곳이 계승) △당과 국가와 고민과 걱정을 함께하며 성실한 땀과 근면한 노력을 아낌없이 헌사 △서로 돕고 위해주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미덕과 미풍 적극 발휘 △예의도덕을 중시하고 준수하는 것을 생활화, 습벽화 △매일 자기의 사업과 언행에 대해 양심적으로 총화하고 이를 통해 도덕적으로 수행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인 현상들과의 투쟁 전개
- (일군들은 혁명적 도덕기풍 확립 사업에서 선구자, 선도자되기) △정신도적적 측면에서 대중의 본보기, 거울되기 △자신들의 사업작품과 도덕품성이 당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 △높은 도덕의식과 문화수준 소유 및 아래일군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도덕교양 강화

-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도덕교양 전개) △도덕교양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망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로 내세우고 옳은 방법론에 의거하여 실속있게 진행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도덕적으로 끊임 없이 단련시키며 긍정적 소행에 대한 평가, 소개, 선전, 적극 조장·발전 △집단주의 정신 발양에 각별히 주목
-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교양에 특별한 관심 경주)△전 세대들의 수령받드는 법과 난국을 타개하는 법 전수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 △부모들과 교원들이 새세대들의 품격형성과 정신도덕적 성장에 주의 기울이기

㉓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는 주체조선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7.8)

- 김일성 사망(1994.7.8.) 28주기를 맞이하여 김일성의 유훈과 김정은의 영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독려하는 사설
-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김정은에 의해 발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선전
 - △자주의 기치높이 조국의 존엄과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친 혁명의 대성인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준 불세출의 위인 △이민 위천의 사상을 구현하여 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로 빛내인 자애로운 아버지
 - 김일성이 물려준 자주, 일심단결의 위력, 이민위천의 사상을 받들고 김정은의 영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할 것을 주문
- 주체혁명위업 완수를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받들기) △김일성과 김정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오직 이것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 추동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하여 철저하고 완벽하게 관철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히 받들기)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충직히 받들기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신념화, 체질화 △당중앙의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사업 끊임없이 심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원칙, 사회주의원칙 확고히 견지

-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혁명적 진군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추동)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양양 △당결정 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 발휘 △방역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여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당이 제시한 올해의 목표를 완수하여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 이룩

④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7.17)

○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하부말단까지 즉시 전달되고 즉시 집행되는 혁명적 기풍 고조를 촉구하는 사설

- *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는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밝힌 전당의 조직적의사이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고와 행동의 지침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수립”

○ 방역위기 상황에서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것을 우려

- 특히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하면서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혁명적 체계와 질서 수립을 촉구

○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올해 상반기 국가정치활동과 관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 관리 측면에서 진일보의 성과 획득 △당면한 난관을 돌파하고 국가부흥의 앞날을 여는 묘술은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길 △내부적 힘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에 모든 부문과 단위가 절대복종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혁명적 체계와 질서를 수립하는 것
- (일치단결된 힘으로 방역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일심단결은 당중앙과 사상적 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보장하는 고도의 자각적 규율이고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의 요구대로만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성 △당과 위기의식을 함께하고 당중앙의 지시와 포치에 절대복종하는 일심단결의 위력은 현 방역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방역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

○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투쟁) △김정은밖에 모른다는 투철한 입장과 김정은의 가르침은 곧 진리이고 실천이라는 확고한 신념 간직 △모든 문제를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수립 △평범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순결한 양심과 의리로 받들기
- (8기 4차와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 발휘) △조건과 가능성,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노력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완수 △당결정을 완벽히 집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도를 부단히 탐구하고 적극 실행하여 자기 단위를 당정책 관철의 본보기로 만들기 △당정책 관철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무능력과 요령주의, 오분 열도식 일본새, 본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그릇된 사상관점과 일본새 척결
- (일군들의 역할 강화) △매시기 제시되는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실속있는 사업과 결과로 당결정 관철을 주도 △당정책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고 성과 경험은 확대하며 허점을 찾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 △대중의 힘을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관철에로 조직동원함에 있어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 잘할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연구
- (당원들의 선봉서기와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⑤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7.20)

- ‘전승절’(7.27)을 일주일 앞두고 혁명의 2세대인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정신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전승세대를 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런 세대로 규정
 - 전승세대들은 전승과 함께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였고,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였으며, 항일혁명선열(혁명 1세대)의 투쟁정신을 특유의 기질로 공고화한 세대로 선전
- ‘전승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전승세대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울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게재한 것은 현재 상황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시사
 - 당면한 시련과 난관 및 방대한 과제들을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주문

- 전승세대를 본받아 방역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5개년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것을 요구

○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정신”의 의미를 설명

-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결사관철의 의지를 백배해 주는 근본원천 △주체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끊임없는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는 원동력 △온 사회에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미덕과 미풍을 더 활짝 꽃피우는 자양분

○ “전승세대가 발휘한 혁명정신, 투쟁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과제들 제시

- (1950년대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자신을 비추어보며 삶의 순간순간을 값 높은 위훈과 헌신으로 빛내기) △당중앙을 목숨으로 옹위하고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충실 △당결정 관철에서 전승세대의 정신도덕적 품모 따라배우기 △전승세대의 영웅적투쟁과 위훈을 되새기며 더 큰 분발력과 투신력 발휘 △전쟁노병들의 삶을 귀감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이고 전투적으로 전개
- (당원들의 선봉서기) △자기 초소와 일터를 오늘의 1211고지로 여기고 당정책 관철에서 기수되기 △기간공업부문 당원들은 올해 전투목표 무조건 완수 △농업과 경공업부문 당원들은 먹는 문제와 소비품문제 해결에서 근본적 전환을 이룬다는 각오로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진전 달성 △비상방역부문과 보건부문 당원들은 비상방역사업을 당과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견지
- (청년들의 전승세대 위훈 본받기)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귀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조국보위에 청춘을 받치는 것을 영예로 간직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주요 전구들과 어려운 초소들에 달려가 용맹과 기개 과시
-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의 맹렬한 사상공세 전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천리마대조고 시기의 전승기와 투쟁기들을 대중에게 각인 △일터와 초소마다 전시가요들과 건설의 노래들이 울리도록 진공적인 사상사업 전개 △전쟁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과의 상봉모임을 정상적으로 의의있게 조직진행하고 교양거점과 교양자료들을 통한 교양사업 강화

⑥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인 지향으로 되게 하자(7.22)

-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필자주: 3대 지향)을 전인민적 지향과 국풍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도식과 경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고 발전적인 것을 지향해 나갈 것을 주문
- 당면한 난국을 주체적 힘을 강화하는 기회로 반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그릇된 사상관점과 구태의연한 사업태도를 일소해야 가능하다고 주장
 - 특히 엄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요소들을 일소하고 새 것을 창조하고 혁신과 전진해야 시련기를 도약기로 반전시킬 수 있음을 강조
- 인민경제 전반에서 “진보와 낙후가 병존하는 비전형적인 실태”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모든 부문, 단위, 분야에서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즉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의 필요성 선전
 - 구태와 모방을 배격하고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이 전인민적 지향으로 되어야 전면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
- 전인민적인 3대 지향을 이룩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꾸준히, 빠짐없이 섭취하여 창조와 혁신의 안목 확대 △8기 4차와 5차 전원회의 문헌 학습을 통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도와 묘술 강구 △무엇이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제손으로 제땅에서 찾아내며 우리식으로 개발·창조 △집단주의, 공산주의구호 하에 힘과 지혜를 모아 새것을 지향해 나가는 풍조 확산 △자신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는 현대과학기술의 주인으로 준비하기 △일군들은 당정책에 입각하여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투시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 △일군들은 대중속에서 비약과 혁신의 묘술을 찾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돌파구 개척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며 자기 부문과 단위에 경쟁의 불길을 고조시켜 새롭고 발전적인 것을 부단히 탐구적용해 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

⑦ 주체조선의 승리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7.27)

- ‘전승절’69주년(1953.7.27)과 제8차 전국노병대회 개최를 기념하여 선대들의 ‘승리전통’을 후대들이 계승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전승절의 의미를 전승뿐만 아니라 자주와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을 추동하는 계기였다고 강조

○ ‘7.27 승리’의 의미를 설명

-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영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영군술에 의해 창조된 위대한 승리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정신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 마련된 자랑찬 승리

○ 전승세대가 물려준 ‘승리전통’을 계승하여 국방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청년들의 반제 의식 및 조국보위 의식 함양을 특별히 주문

- 김정은의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의 연장선에서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철저히 대처할 것을 요구
- 청년세대들의 이완된 반제의식을 우려, 전승세대들의 조국보위정신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

○ ‘승리의 전통’이 김정은에 의해 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다고 선전

- (김일성이 창조한 승리전통의 보검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 수호)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혁명강군화 △강위력한 국방공업 건설로 세계적인 군사강국 지위로 상승 △미제의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공화국의 자주권 수호
- (김정은 영도 하에 승리전통이 사상정신적 무기로 발전) △김일성과 김정일이 물려준 승리전통을 발전풍부화 △혁명무력의 절대적 우세 유지 및 부단히 상향시키는 군건설방향과 총노선 제시 △김정은의 영도 하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사상과 신념의 강군, 불패의 최정예 혁명강군화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 △새로운 첨단무기체계를 연속 개발, 완성하여 전쟁억제력을 최상의 경지로 발전
- (전쟁노병들을 영웅세대로 옹립하고 전체 인민들이 이를 본받아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인도) △매년 전승절 경축을 전통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조성 △노병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축하연설 실시

○ ‘승리전통’을 보검으로 하여 주체의 강국을 수립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 △전승세대들처럼 수령(김정은)이 있어 필수불패라는 신념 간직 및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기 △전승세대들처럼 김정은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결사옹위 △전당과 온 사회에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철저히 확립 및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

- (전승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에 매진) △전승세대들의 결사의 희생정신과 불굴의 정신을 적극 본받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를 생리로 하는 특유의 우월성 과시 △8기 4차와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 및 올해 국가경제정책을 무조건 실행 △가혹한 시련과 난관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전승세대를 따라 용기와 분발력 발휘
- (자위적 국방력 강화사업 중단없이, 강력히 추진) △인민군대 최정예화, 강군화 사업 계속 추진으로 어떤 형태의 위협과 불의적 사태에도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8차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전략 철저 수행 및 국방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흔들림없이 수호하기 위한 막강한 힘 비축
- (새세대 청년들의 승리전통 계승) △청년들의 전승세대 정신과 기풍 따라배우기 △조국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간직 △제국주의를 끝없이 미워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보위
- (승리전통 계승을 위한 당 및 근로단체들의 사상공세 강화)

⑧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나가자(7.30)

- 일군들이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체득하고 철저히 구현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노동당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유일한 존재방식이자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라고 선전하면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 나갈 것”을 주문
- 극난한 조건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기본목적은 난관극복을 통한 도약보다 인민의 행복에 두고 있다고 강조
 - 난관극복을 통한 도약(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명치 않지만, 국가발전보다는 인민생활향상을 우선시해야 할 만큼 인민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방증
- “일군들이 당의 인민관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것”의 의미를 설명
 -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위민헌신의 복무자세는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강화하는 근본비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위해 항상 인민과 일심동체 이루기

-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요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사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려는 것은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를 지향하고 있는 지금이 일군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때

○ “인민관의 진수”를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

-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관점(이민위천) △인민의 존엄과 권익에 대한 최대의 중시 △인민을 위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위민헌신)

○ 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자세들 제시

- (숭고한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을 확고부동한 신조로 삼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실현의 첫걸음은 인민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관점과 입장 견지 및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의 참뜻을 좌우명, 신념으로 간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스승으로 섬기며 군중을 대할 때마다 위대한 인민이 앞에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 △일군의 존재명분도 인민을 위해 있으며, 가장 위대한 힘도 인민대중 속에 있다는 진리 명심
- (어머니의 심정으로 인민들을 따듯이 보살피는 것을 인생관으로 삼기) △자식들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자식을 위한 고생도 낙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인민을 대하고 위해주기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복무관점 견지 △집안일보다 나라일을 먼저 생각하는 인민을 위해 헌신
-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활동원칙과 생활준칙으로 삼기)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대중의 요구와 민심을 적시 파악 △인민생활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 △특전과 특혜를 바라는 현상 절대 불허
-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사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모든 사업의 작전과 구상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관점 견지 △농업부문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결사의 각오 견지 및 올해 알곡생산목표 기어이 점령 △경공업부문은 생필품의 질이 인민관을 반영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이 호평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같은 희생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인민을 위해 기울이기

3

개별 사설 분석

8월

① 오늘의 전인민적인 진군길에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자(8.1)

- 8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애국심 발휘와 애국투쟁 전개를 촉구하는 사설
 - 국가의 부흥과 발전은 공민들의 애국투쟁에 의해 담보된다고 강조
- 가사보다는 국사를, 개인의 향락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애국심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게된 원동력이라고 선전
 - * “사람들이 국가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리속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헌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향유의 권리만 추구한다면 그러한 나라는 전도가 없다”
- 5개년계획 수행의 관건적 시기를 맞이하여 촉박하고 방대한 투쟁과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
 - 모두가 방역대전의 전초병이 되고 높은 경제계획 수행 실적을 이룰 때 국난극복과 국가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
- “국가부흥의 참된 애국자가 되어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당에 대한 충성) △당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기 △당에 대한 절대적 신뢰 및 당과의 보조일치 유지 △당의 방침과 지시를 무조건 정확히 관철 △조건과 환경을 빙자한 당정책 후론 및 태공과의 강도 높은 투쟁 전개
 -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과 투신) 사회주의 조국이 있어 가정의 행복과 자식들의 미래도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고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되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신의 희생 여부를 항시 생각하며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넘어 적극 기여

- (당조직들의 역동적이고 공세적인 사상교양사업 전개) △당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당과 국가의 혜택에 감사하며 이에 보답하도록 유도하는 교양사업 전개 △ 어려운 경제형편과 인민생활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라일에 헌신 하였던 전 세대들의 투쟁기풍을 고유의 국풍으로 계승하도록 인도 △사회주의 애국 근로자들의 모범 따라배우기 및 대중 속에서 발현된 긍정적 소행들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상사업 진행

②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높은 창조적능력과 완강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8.2)

- 올해 전투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생산투쟁과 증산투쟁을 과감히 전개할 것을 독려하는 사설
 -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높은 창조적 능력과 철저한 실천행동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을 주문
 - 8.1일자 사설은 인민생활향상에 방점을 둔 반면, 이번 사설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방점을 부여
-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보위하는 정치적 사업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현재의 난관을 내적동력 강화의 기회로 반전시킬 것을 촉구
 - 하반기의 성과를 포함한 올해의 성과는 5개년계획 수행의 관건이므로 5개년계획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주문
-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창조적 능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관철 여부는 경제실무적인 문제이기 전에 당의 권위와 직결된 중대한 정치적 사업 △조건과 환경을 빙자한 결정 미관철은 상반기 성과를 헛되이하여 올해 5개년계획 수행의 확고한 담보 마련 및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 실현에 차질 발생
 -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하여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중요한 담보) △단순히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현상유지나 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주체역량강화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투쟁 전개 △무책임한 일본새, 무능력과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으로는 주체적 힘을 응집하는 것이 불가능 △창조의 정신 발휘와 새것 창조, 자기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해야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동시병행발전이 가능

○ 일군들의 그릇된 사업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

- * “단위사업이 어떻게 되는 일을 되는대로 하는 그릇된 태도, 앉아서 조건타발이나 우는 소리를 하고 눈가림식으로 일하는 패배주의와 형식주의, 말이나 듣지 않을 정도로 시키는 일이나 적당히 하면서 현상유지를 하는 보신주의”

○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기풍 확립”을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의 창조정신과 창조기풍 따라배우기) △도식과 경직을 배격하고 혁신적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 △부단히 새것을 지향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한 최상의 것 창조
- (발전하는 현실에 맞춘 실력 배양) △모든 사업을 창조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인 당중앙의 사상과 정책을 깊이 연구 및 그 진수를 원리적으로 체득 △당이 요구하는 창조의 높이,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현하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 △당정책에 철저히 입각하여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올바른 방도 강구 및 대담한 실천
-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삼기) △자기 부문과 단위의 증산투쟁과 창조투쟁을 주도 하는 실력가되기 △전공부문과 연관부문의 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 △과학기술 보급실의 열성독자되기
- (일군들의 앞장서기)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는 혁신적 안목을 가지고 새것을 창조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새것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개척자, 선구자되기 △자기 부문과 단위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관점을 갖고 상반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결점을 극복 △항상 사업을 연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착상하고 새로운 일감찾기를 습벽화 △패배주의, 형식주의, 보신주의 등 낡은 사상관점과 수동적이며 피동적인 사업 기풍과 단호히 결별 △특히 책임일군들은 밤을 새서라도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

③ 김화군을 본보기로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자(8.4)

○ 당의 지방공업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있는 김화군을 모범으로 삼아 전국적으로 지방공업공장 현대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당중앙의 지방경제발전 구상의 기준을 김화군이 창조한 것으로 평가

- * “오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을 가진 김화군은 자체의 힘으로 군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특유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게 되었다. 시, 군들이 김화군처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야 지역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자연 부원에 의거하여 다각적으로 발전하며 자립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다”

○ “김화군을 본보기로 전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인민소비품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선결조건) △지방공업공장들이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생산정상화를 이루려면 생산설비와 공정의 현대화가 필요 △현대화사업은 단순히 생산설비 교체와 공정 보강 등 실무적 사업만이 아니라 선진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임이 김화군에서 입증
- (시, 군들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 △시, 군들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및 지방 특색적 발전은 주체적힘, 내적동력 증대를 추동 △시, 군 특유의 진보와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생산설비와 공정을 갖춘 공장들이 필요 △현대화된 공장이 있어야 지역의 이름과 결부된 세계적인 명상품, 독점제품 생산이 가능
- (나라의 경제를 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격차 해소 및 모든 시, 군들의 균일한 발전은 경제정상화 및 지속 발전의 토대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당의 전통적 사업방식은 중앙공업과 지방공업 간의 격차 해소 및 모든 시, 군들의 균형적 동시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방도

○ 모든 시, 군들이 김화군처럼 자기 지역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신속히 현대화하여 국가 경제의 균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독려

- 김화군의 모범사례를 “지방공업혁명의 의의깊은 출발점이자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전진을 알리는 역사적 계기”라고 선전

○ 김화군을 모범으로 하는 지방공업공장 현대화를 위한 과제들 제시

-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보루이자 지방경제 발전의 거점인 시, 군의 역할 제고) △김화군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연구 △과학적 타산을 통해 자체의 힘으로 공장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동원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수립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 △기초식품공장과 식료공장과 같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장부터 먼저 추진 △공장 현대화사업과 함께 원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책 수립

- (시, 군 책임일군들이 현대화 투쟁의 선두에 서서 맹활약) △대중속에서 동고동락 하면서 문제를 해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 척결 △국가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우선시 △당중앙의 파견원, 지역적 보좌관으로서의 사명과 본분 자각 △현대화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로 일관 및 행정일군들을 적극 지원
- (선진과학기술과 인재 활용) △과학기술자들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설비와 생산공정의 국산화, 현대화 수준 제고 △현대화과정이 자신의 과학기술지식과 기능수준, 능력을 끊임없이 제고하는 계기로 이용
- (기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은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창발성 높이 발양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간공업부문들은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보장

④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8.6)

○ 당정책을 생명선으로 하여 무조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당중앙의 절대적 권위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당중앙의 권위는 인민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자부심이며 영광이므로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호보위 △당정책 관철전은 당중앙 존엄사수전이자 권위보위전이므로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옹호보위
-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당정책을 완전무결하게 관철하는 것은 시련 돌파와 국가발전 축진의 지름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하고 정확히 집행하는 기풍을 확고히 수립해야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단계로의 도약이 가능

○ 당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투철한 사상적 각오와 결심 견지)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확고한 관점, 당이 정해진 시간에 요구한대로 관철하는 투쟁기풍, 죽음도 불사하는 결사의 정신 견지 △당정책 학습열풍 고조를 통한 당이 노선과 정책의 진수 체득
- (당정책 관철의 주인되기) △전투목표를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 △농업 부분과 경공업부문에서 허풍치는 현상, 양적성장만 앞세우고 질을 외면하는 그릇된 일본새 척결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 수행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 적극 따라배우기

- (일군들의 사명과 본분 다하기 및 각급 당조직들의 사상동원사업 공세적 전개)

⑤ 사상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불굴의 정신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 해나가자(8.13)

- 비상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자평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전염병 발생 900여 일이 지난 현재”에도 서구 선진국들이 전염병을 제대로 통제관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김정은의 애민 업적을 부각
 - 북한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이고 빠른 확산 추세를 단기적이고 적시에 방역 안정을 회복하였다고 주장
 - 김정은이 지난 5월 개최한 8기 8차 정치국회의에서 방역위기 대처원칙과 방안 제시, 최대비상방역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전략예비의약품 긴급 해제 등을 지시한 결과로 선전
 - * “방역전쟁에서의 승리야말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희생적인 헌신이 떠올린 인민사랑의 결정체”
 - 동시에 방역대전을 거치면서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심이 더욱 높아졌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과시하는 계기였다고 강조
 - * “온 나라가 당과 정부의 두리에 일심일체를 이루고 한결같이 움직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덕과 정이 국풍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적 우월성과 위력이 있으며, 이것은 류례없는 방역위기를 용이하게 타개하고 대승을 가져올수 있게 한 무궁무진한 힘이였다”
- “방역대전의 승리를 승화시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 명심)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단결 △방역대전에서 과시한 김정은의 위대성과 업적 명심 및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절대충실 △김정은의 혁명사상 신념화 및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 철저히 확립
 - (방역사업에서 사소한 방심과 해이 불허 및 고도의 긴장성 견지)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해이와 방심 철저히 경계 및 방역규율과 질서 엄격히 준수 △누구나 방역전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다하기 △특유의 조직성과 자각적 일치성 견지 및 서로 돕고 통제하는 대중적 방역분위기 계속 고조 △국경과 전연, 해안을 철통같이 봉쇄하고 방역사업에서 사소한 공간과 허점 불허

- (방역, 보건부문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임무에 대한 책임성 높이 발휘) △당정책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 △가장 훌륭한 보건제도와 방역제도의 실질적인 혜택과 보호를 받는 행복한 인민으로 만들려는 당중앙의 구상을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받들기
-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방역대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사회주의건설과 국가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명령과 지시를 당중앙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집행 △당의 방역정책으로 전체 인민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사업과 생산활동, 생활을 철저히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진행 △당의 국가방역능력 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방역능력과 위기대응능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 마련
- (변화된 방역형세와 주객관적 조건에 맞도록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작전·지휘) △당이 제시한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 발전으로 확고히 이행 △방역대전에서 승리한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동·승화시켜 온 나라에 창조와 혁신, 집단적이고 연대적 혁신의 불길 고조 △사상최악의 위기 속에서 정상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속도를 보장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찾은 결함과 교훈을 바탕으로 부문과 단위발전 촉진

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우리 국가의 전면적부흥으로 빛내여나가자(8.15)

- 해방 77주년을 맞이하여 김일성의 항일 업적을 찬양하는 가운데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빛내여 나갈 것을 촉구하는 사설
 - 김일성의 해방 업적은 오늘날 김정은에 의해 불패의 강국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선전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빛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실현할 것”을 주문
- 김일성의 해방 업적이 갖는 의미를 설명
 - △자주의 기치높이 국가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칠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재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강력한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초석 △인민의 꿈과 이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
- “당중앙의 영도따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혁명적 진군에 총매진”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일성의 해방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김일성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기 △김일성민족의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간직 △김일성이 물려준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 재부들을 견결히 보위 △백두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
-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 받들기) △항일혁명열사들처럼 수령과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는 열혈충신 되기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결사의 실천행동으로 받드는 참된 혁명가 되기 △김정은이 있어 필승한다는 신념과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더 부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각인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노선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간직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 발휘
-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부흥강국의 새시대 열기) △항일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의 기적과 위훈 창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올해 전투목표 기어이 점령하여 5개년계획 수행의 굳건한 담보 마련 △집단적 혁신과 연대적 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전면적 발전으로 확고히 이행

⑦ 비상한 각오 안고 올해 농사결속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8.17)

- 농사를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의 하나로 제시한 8기 5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 발전을 촉구하는 사설
 - 태풍 등 기상조건의 악화 및 수확철을 앞둔 지금부터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올해 농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강조
- 올해 농업생산 성과에 대한 절박성을 피력
 - △농업생산 발전을 국가의 존망과 혁명의 전진을 좌우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관건 △5개년계획 수행의 사활적 문제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전선이 성과를 거두어야 다른 전선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
- 올해의 농사를 잘 결속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주인의식 갖기) △농작물비배관리에 온갖 지성 다하기 △과학기술적인 논물관리 △여러가지 비료 시비를 통한 논벼의 뿌리활성 제고 및 천알질량(날알 천알의 질량) 최대 증대 △강냉이밭에 물도랑을 깊이 파고 통풍과 빛받이 조건을 개선하며 영양관리를 잘하여 정보당 수확고 향상

- (자연피해 최소화 투쟁을 강도높게 전개) △하천정리와 배수로치기를 잘하고 하천 제방과 해안방조제를 보수, 보강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강냉이밭 새끼줄늘이기와 여러개체 묶어주기를 잘하여 강풍피해 최소화 △피해 농작물에 대한 살균제와 생물활성제, 미량원소비료 정상적 분무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인한 각종 병충해의 발생동태 파악과 즉시 구제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수매를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잘하기) △트랙터와 벼종합 수확기, 탈곡기 등 농기계들을 제때에 수리, 정비 △강냉이창자와 알곡건조장 보수, 중간창고건설을 비롯한 빈틈없는 가을걷이 준비
- (온 나라 차원의 결속 투쟁 전개) △내각과 노동성은 농촌노력동원시기 바로 정하기, 합리적인 노력 배치, 노력보장과 지원사업에서 사소한 편향도 불허 △해당 부문과 연관단위는 비배관리와 가을걷이, 낱알털기, 수매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무조건 생산, 보장 △전력공업부문은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하기 위한 대책 수립
-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㉘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기개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자 (8.28)

- 청년절 31주년(1991.8.28.)을 맞이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에서 청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사설
- 청년들이 영달과 향락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북한의 청년들은 충실하고 성실하며 혁명적이고 애국적이라고 선전
 - 북한의 청년들은 고생과 시련을 낙으로 여기고 조국 앞에 충실하며 사회와 집단 앞에서 성실하고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이라고 주장
- 청년들의 신념, 의지, 그리고 지향을 구호로 설명
 - (신념) “당중앙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자”
 - (의지) “사회주의조국의 견결한 수호자가 되자”
 - (지향) “우리 손으로 아름다운 미래(국가부흥)를 창조하자”
-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투쟁에서 청년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 제시

- (김일성과 김정일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애국의 재부로 삼기) △김일성과 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이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 △김일성과 김정일의 청년운동사적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체득
- (김정은의 혁명사상과 영도를 청년운동의 실천강령과 원동력으로 삼기) △김정은의 혁명사상을 각인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열렬한 애국자 되기 △김정은이 있어 필승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간직 및 김정은의 두리에 굳게 단결 △천리마시대, 노동당시대의 전세대 청년들처럼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 관철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에서 창조와 혁신 고조) △매일 맡겨진 전투계획 무조건 수행 △과학기술혁신과 창의고안으로 자기 부문과 단위사업 추동 △청년돌격대 운동,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운동 등 여러 가지 대중운동 활발히 전개 △청년들의 집단적, 연대적 혁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 가속화
- (청년동맹조직 강화에 주력)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은 조직사상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청년들의 사상감정과 정서, 의식수준에 맞는 새로운 교양방법 꾸준히 탐구, 적용 △청년들의 문화수준 제고를 통한 새 문명창조에서 선구자적 역할 발휘를 유도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역할 제고) △자기 지역과 부문,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이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정책적 지도와 정치적 지도 심화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 창조 및 일반화 사업을 전당적으로 추진

3

개별 사설 분석

9월

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자(9.1)

-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 기치 하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
 - 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 세운 강력한 의지
 - * “공화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억세게 싸워온 가슴 벅찬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끝없이 휘황찬란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굳센 신념을 새겨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
 -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같이 간직된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
 - * “조국과 인민을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키고 전체 인민을 국가부흥을 위한 투쟁으로 떠밀어주는 사상정신적 원천이 바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이다”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의 의미를 설명
 -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국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승화시키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나라의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 것
 - 김정은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선결조건
 - 인민들의 정신력과 창조적 열의를 총분출시켜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근본요구
- “우리 국가”를 강대국이자 필승불패국으로 정의하고 강대국의 공민다운 자세로 투쟁하여 5개년계획의 목표를 점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 것을 독려

- “강한 나라의 인민다운 기품과 인격을 높이 발양”, “강대국의 공민다운 자각을 안고 당당하게 처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투쟁한다는 자긍심을 간직”, “존엄높은 공화국의 공민다운 이상과 포부를 확고히 견지” 등과 같이 강대국 공민으로서의 자세를 요구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우리 수령제일주의와 등치시켜 김정은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관철할 것을 주문

*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곧 우리 수령제일주의이다”

○ “세계가 우러르고 위용있고 융성번영하는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기) △김정은의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 확고히 견지, 인민정권 끊임없이 강화, 3대혁명 힘있게 전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정치풍토이자 국풍으로 공고화, 국가건설과 활동 전반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 철저히 구현 △최고인민회의의 14기 5차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 철저히 관철
- (높은 공민적 자각을 안고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에 헌신)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들에서 제시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진군을 과감히 전개 △인민경제계획 수행이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자 헌신적 복무임을 명심하고 올해 전투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든 것 바치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본위주의와 단위특수화를 비롯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저촉되는 낙후한 사상을 단호히 척결 및 국가적 이익의 견지에서 사업하는 기풍을 확고히 견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시련 타개와 사회주의 경제건설 견인
- (국가를 존엄있게 대하고 강대국의 공민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는 기풍 확립) △국기와 국장 등 국가상징 신성시 △모든 국가법률 절대 존중 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수립 △새세대들에 대한 애국교양 강화
-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교양 강화)

② 일군들은 당과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자기 지역과 부문, 단위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자(9.7)

○ 일군들이 김정은의 지도하에 진행된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 결정관철에 헌신분투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북한은 9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간 동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재해방지실태 점검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강구
 - 이번 회의는 역대급 태풍과 폭우피해가 예상되는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시점에 개최
-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은 모든 부문과 단위, 지역의 비약과 혁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 부분과 단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일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분발할 것을 주문
- 일군들이 난관 앞에서 불평하고 조건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의 과업을 완벽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
- “일군들이 자기 맡은 사업을 책임지는 것”의 의미를 설명
-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담보하고 행복한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필수적 요구
 - * “모든 지역, 모든 부문과 단위를 인민들의 행복한 삶이 꽃피고 혁명적기백과 량만이 넘치는 터전으로 가꾸며 인민들에게 참다운 문명과 복리를 안겨주는 것은 현시기 당의 인민 대중제일주의정치 실현에서 나서는 최우선의 과제”
 -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5개년계획 수행에서 확실한 진일보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요구
 - *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의 관건적인 해이다. 우리가 최대로 분발하여 올해 전투목표를 점령해야 5개년계획수행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고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칠수 있다”
- “일군들이 당의 신임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당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절대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기 위한 결사의 각오 간직) △ 당정책 학습을 그 진수를 파악하는데 기본을 두고 실속있게 전개 및 당정책에서 묘술찾기를 습벽화 △당정책에 철저히 입각한 모든 사업 진행 및 혁명임무에 대한 책임의식 배가 △당성은 혁명과업 수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뚜렷한 사업성과와 실적으로 당중앙의 권위를 보위
 - (사업에서 주도성, 창발성, 진취적인 일본새 발휘) △실천적 모범으로 단위사업 주도 △부문과 단위사업 개선에서 나타난 결함과 허점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 △빈틈 없는 조직사업과 함께 현장에서 집행정형을 요해하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결사관철 △항상 단위사업을 연구하며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

- (재해방지능력 강화사업에 만전) △언제든지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모든 피해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 총동원 △소기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성과에서도 부족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방지사업에서 사소한 허점과 공간도 불허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현상, 주먹구구식과 땀때우기식 일본새 척결 △과학적인 작전과 구체적인 타산 하에 모든 사업을 진행

③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 하자(9.11)

○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9.7-8)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

- 사설은 김정은이 동 연설에서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위한 투쟁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강조
- * “총비서동지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조성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 나라의 구체적인실정, 발전잠재력과 토대에 대한 명철한 분석에 기초하여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 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밝혀주시었다”

○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 실현을 위한 세 가지 투쟁목표와 네 가지 투쟁과업을 제시

- (투쟁목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정치군사적 담보 마련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없는 튼튼한 경제적 토대 구축 △사회주의문화건설 추동
- (투쟁과업) △국가방위력건설을 제1혁명과업으로 추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 및 그 성과를 다음단계로 확대 △사상, 교육, 과학기술, 보건사업 중시 및 그 발전에 주력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

○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

- (특유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킬 수 있는 담보)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 및 전체 인민의 주권활동 심화 △국가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우선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애국의 열의 분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 발휘

-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담보)

○ 김정은의 시정연설 관철을 위한 과제들 제시

- (김정은 시정연설에 제시된 사상들을 깊이 체득) △시정연설에 대한 실속있는 학습 진행을 통한 정확한 진수 파악 △시정연설에 대한 학습을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결부하여 진행하여 실효성 제고 △전진을 저애하는 온갖 낡은 사상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굳히는 학습과정의 기회로 활용
- (김정은이 있어 필승한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으로 간직 및 김정은이 가리키는 한길로 전진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 및 어떤 역경속에서도 김정은과 사상, 뜻, 보조 일치 △김정은의 시정연설을 국가 발전의 백승의 지침화 및 김정은이 제시한 전투적 과업 철저히 관철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 및 그 성과를 다음단계로 확대하기 위한 강력 투쟁 전개) △농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먹는문제 해결의 확고한 전망 개척 및 새시대 농촌 진흥 추동 △소비품의 질제고 및 인민들이 선호하고 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 생산 △기간공업부문들에서의 생산적 양양을 통한 인민경제전반 견인 △지방공업 발전을 통한 지방 자체로 발전하는 새시대 열기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 온실농장건설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 사업들을 계획적이고, 단계별로 추진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사업을 힘있게 추진
- (자력과 기술에 철저히 의거한 길만이 경제발전의 활로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 △패배주의, 보수주의, 소극성 등 전진을 저애하는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인 사상관점 단호히 척결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 중시 및 그 발전에 주력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굳건한 담보 마련
-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일군들의 분발) △항상 중압감과 긴장된 책임의식 속에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 △대외의 최전방에서 이신작척의 기풍으로 투신 △인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문제들을 해결 △당과 인민의 기대를 항상 자각하고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 제고 △정신도덕적으로 부단히 수양, 단련
-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제고) △자기 지역과 단위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과 지시를 전적으로 맡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수행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주민들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적극 조성 △당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책 강구 및 식수문제, 땀감문제 등 인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적극 전개

④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자(9.19)

- 추수기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증산을 통해 당의 권위를 보위할 것을 독려하는 사설
 - 5개년계획 수행의 사활이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에 달려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충성심과 애국심을 총폭발시킬 것을 촉구
- “올해 농사결속을 잘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보위하기 위한 정치적 사업
 - * “당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회의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8기 5차 전원회의는 농사를 올해 경제과업들 중 급선무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백사불구하고 농사부터 잘 지을데 대하여 또다시 강조”
 -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 및 사회주의건설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
 - * “현존하는 위협들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쌀이 많아야 한다”
-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분발을 특별히 주문
 -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변함없이 기치를 들고 내달려야 한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남다른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온 한해 바쳐온 충성의 열정을 다시한번 총폭발”
- 가을걷이(추수)와 낱알털기(탈곡)를 적기에 신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
 - 태풍과 폭우 등 긴박한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수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히 마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또한 추수와 탈곡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낱알의 손실을 줄일 것을 요구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농업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과 본분 다하기) △당의 존엄과 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고 국가의 자존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문제로 명심하고 백배로 분발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혁신창조예로 추동 △합리적인 작업 조직과 노력 조직 및 전력, 연유, 농기계들의 효과적 이용대책 마련 △치밀한 양곡수매와 운반사업 조직 △낱알 보관 잘하기

- (온 나라에 농촌지원 분위기 고조)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내각과 성, 중앙기관들의 박력있는 조직사업과 지휘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 총발동을 통한 각 방면에서의 농촌 지원 △전력공업부문은 중단없는 전력 보장
- (당 및 근로단체들의 역할 제고)

⑤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위하여 총동원 앞으로!(9.28)

- 당중앙위원회 8기 10차 정치국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의 농업생산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사설
 - 북한은 9월 25일 김정은이 불참(조용원 조직비서 사회)한 가운데 개최한 동 회의에서 올해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중요 결정서를 채택
- 식량문제 해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당의 농촌지원 성과를 제시
 -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치적 문제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과제 △자존을 지킬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배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 △국가의 존망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
 - △농장들의 부채면제 특별조치 단행 △비료와 농약 등 영농물자 적시 보장 대책 수립 △황해남도에서 새로 만든 수천대의 농기계 보급과 같은 농촌 지원 성과를 선전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것”의 의미를 설명
 - 당의 권위를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업
 -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는 단순히 농업생산을 위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현실로 펼쳐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
 - 인민경제전반에 활력을 부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
 - * “농사는 경제부문들가운데서 한해 사업결과가 제일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하여 농업부문에서부터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려야 다른 모든 부문들이 신심드높이 내달리게 된다”
- 농업생산 실적을 허위보고하는 현상에 대해 특별히 경고
 - *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정책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영농실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과제들 제시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책임과 본분 다하기) △올해 농사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각오와 책임감을 갖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열정 바치기 △합리적인 작업 조직과 노력 조직 및 기계화 수단 최대 동원·이용을 통한 신속한 추수와 탈곡대책 수립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기) △농사문제에서는 누구도 외면할 권리가 없으며 예외도 불허 △자기 집일처럼 농사일을 양심적으로 알차게 수행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는 기풍 발휘 △농촌지원노력을 농사와 관련없는 사업에 동원하거나 작업과제를 적당히 주어 노력을 낭비하는 현상 근절
- (연관부문들의 물질기술적 지원)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들은 추수와 탈곡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영농물자 최우선 보장 △전력공업부문은 농촌에 전기를 우선적으로 중단없이 공급 △기상관측부문은 날씨예보의 정확성과 과학성 보장
- (당 및 근로단체들의 역할 제고)

⑥ 농촌진흥의 변혁적실체들을 련이어 안아오는 위대한 당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자 (9.29)

○ 8기 10차 정치국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농사의 성과적 결속을 촉구하는 사설

- 특히 곡창지대 황해남도에서 당의 각별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

○ 농업에서의 기계화 비중 증대를 사회주의농촌진흥사업의 절박한 과업으로 규정하면서 군수공업부문을 활용한 김정은의 관련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

-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정은이 군수공업부문에서 만든 5,500대의 새 농기계들을 황해남도에 공급한 것을 “황남의 대경사”, “9월의 대경사”로 표현
- *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총궐기하여 현시기 농산작업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기계들을 최단기간내에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한 해 농사를 결속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나라의 기본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새 농기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 군수공업부문에서 5,500대의 농기계를 생산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필요에 따라 군수공업의 성과를 민수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활용하려는 의도

- 이 밖에 황해남도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배려사례로 많은 제대군인 파견, 영농물자와 자재 우선 보장, 비상방역대전 당시 2차례에 걸친 의약품 제공 등을 제시

○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부문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 제시

- (농업부문과 각 도, 시, 군 당조직들의 일대 사상전 전개) △황해남도에 대한 당의 은덕과 배려를 농업전선에서 당결정 결사관철 투쟁의 명분으로 활용 △황남의 대경사를 계기로 농업근로자들 속에 당이 제일이고 당정책이 제일이라는 신념교양, 당과 국가, 제도의 고마움을 체득시키기 위한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집단주의 교양 전개 △농업부문에 대한 당의 은정에 관한 해설교양으로 농업부문 근로자들을 가을걷이로 인도하는 선전선동공세 강화 △당의 은덕에 눈물과 고마움의 만세가 아니라 쌀로써 보답하는 애국농민이 되기 위해 분발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다수확농장원, 다수확분조, 다수확작업반의 예를 지니기 위해 노력
-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농업생산 기계화의 중요성 명심)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이 발휘한 충실성, 책임성, 헌신성을 본받아 농촌에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많이 보내고 농업생산환경을 선진적이고 현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 전개 △내각과 기계공업성, 농업위원회 등 해당 단위들은 군수노동계급들처럼 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 보급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열심히 학습, 탐구하여 자기 농장과 고장의 실정에 맞게 기계를 더 혁신하고 창안하기 위한 기술혁명 전개 △농촌기계화초병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개조, 기술창조, 기술도약의 선봉에 서기
-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은정에 보답하여 농업도의 책임다하기)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 실천 투쟁에서 전국의 모범되기 △농민영웅, 다수확단위, 과학농사의 선구자가 되고 농업부문의 전형과 기준을 창조하며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황남에서 먼저 개막 △농기계 애호관리 및 기계농사에 앞장서기

//끝//